'장 뤽 뛰느방이 선보이는 가라지 와인'

배드 보이 시라

Bad Boy Syrah

지역	프랑스 〉 보르도 〉 쌩떼밀리옹		
포도품종	시라 100%		
알코올	14%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3-15℃		
테이스팅 노트	배드 보이 보다는 조금 더 복합미가 느껴진다. 시라 특징에서 오는 코코아, 다크 초콜렛의 노트가 끝에서 느껴진다.		
페어링 TIP	육류, 단단한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지구 온난화로 유럽 지역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괴짜 와인메이커 뛰느방은 실험 정신을 발휘하여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남부 프랑스 와인의 대표 품종인 시라를 식재한다. 쌩떼밀리옹 그랑 크뤼 클라세 B에 선정된 샤또 발랑드로의 빈야드 옆에 2010년 식재된 시라는 놀랍게도 보르도의 환경에 적응하고, 장 뤽 뛰느방의 천재성을 대변하는 배드 보이 브랜드로 출시된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